교수 1인당 논문 1.6편 발표(수원)

연구비 10억 지급, 서울은 지급 미뤄져

수원캠퍼스 연구처는 수원캠퍼스 전임교원의 92년도 연구실적 심사결과 및 연구비 지급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3월말부터 한달간 각 단대학장의 1차심사, 연구처의 최종심사 순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전임교원 1백95명 중 70.3%인 1백37명이 1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여 91년 66.4%보다 3.9% 증가된 경향을 보였다.

예체능 계열의 작품발표·전시를 제외한 발표논문은 총 3백18편으로 교수 1인당 1.6편을 발표하였으며 단과대별로는 공대가 1백34편으로 가장 많은 연구실적을 나타냈다. 지난 해 수원캠퍼스 교·내외 연구비는 총 10억1천9백80만원으로 91년에 비해 39.5%가 증가했다.

연구처는 심사결과가 교수의 교내연구비 수혜, 교수승진·재임용, 연구년제 대상 선정등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캠퍼스 연구처는 92년 교내연구비 2차지급액 총 5천5백4만원 지급을 위한 선정작업을 벌리고 있으나, 지난 4월 30일까지 연구실적을 제출할 72명의 교수·연구소 중 35곳이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아 지급선정 등이 미뤄지고 있다.

〈박경화, 남은영 記者〉

연구처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공모하는 '93양서개발 지원 신청공모'에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받는다.

공모자격은 소속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이며, 분야제한 없이 지술, 연구번역 내용으로 지원 하면 된다.

체육부, 연승! 연승!

탁구우승, 여자축구우승 등

오월 초반에 막을 내린 각종 경기에서 수원캠퍼스 체육부가 선전하고 있다.

지난 3일부터 5일간 대구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제11회 대학탁구선수권 대회'에서 본교 탁구부가 2년만에 여자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탁구부는 결승전에서 박은아(체과대 체육·4)양 등 5명이 출전하여 한체대와 5시간의 경기를 펼친 끝에 셋트스코어 3대2로 승리하여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여자 축구부는 지난 3일 동대문운동장에서 막을 내린 '제1회 여왕배 종별 선수권대회'결승전에서 체육신학교를 1대0으로 누르고 우승했으며 한옥선(체과대 체육·1)양이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한편 지난 2일까지 대구에서 치러진 '제48회 전국 종별 핸드볼대회'에서 본교 핸드볼부가 우승을 차지했다.

"경희체육을 위해"

체대인의 하나됨을 위한 '체대 양배윤터 어우러짐 한마당'이 지난 7일 서울 캠퍼스 대운동장에서 8백여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한마당'에서는 응원단 시범, 교수·조교 축구 대회, 여자 축구, 줄다리기 등의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되었으며, 여자 축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합을 캠퍼스의 구분없이 새로 팀을 편성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경기들이 진행되었다.

약사법 철회위한 단식농성

본교생 12명 총 60명, 민주당서

약사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한 한의대생들의 투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3월 23일 수업거부에 들어간 이후 오늘로 수업거부 49일째를 맞고 있는 전국 한의대 학생들은 그 동안 약사법 시행규칙 철회를 위한 서명운동과 보건사회부 항의방문, 항위집회 등을 해왔다.

본교생 12명을 비롯한 전국 한의대생 60여명은 지난 1일 민주당사에서 민주의학 사수와 약사법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지난 7일에는 '보사부 편파행정규탄 및 독립적 한방의약법 제정 촉구대회'가 종교공원에서 열렸다.

전국 한의과대학 학생회는 오는 11일에 보사부 항의 집회와 12일에는 국회의사당 항의방문, 13일에는 과고다공원에서의 집회를 계획중이다.

한편 13일에는 국회 보사부 상임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아울러 공청회도 가질 예정이어서 독립적인 한방의약법 제정과 보사부내의 한방의약정국 설치, 약사의 한약조제 금지, 한방 의료보험 실시, 공중보건 한의사제도 실시 등 한의대생의 요구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당징집 철회 농성

본교 12명 징집대상

'양심수 군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양군모)'소속 30여명은 지난 6일 양심수 부당징집 철회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관련기사 5면〉

양군모는 현행 징집제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병무청 항의방문과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현재 우리학교에서 시국사건 관련으로 구속된 적이 있거나 수배를 당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징집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자는 박홍근군 등 총 12명으로 파악된다.

우리 학교의 학생중 해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홍근(국문 88·92년 총학생회장, 전대협의장 권한대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 등 위반으로 현재 수배중), 심민성(무역 87·집시법 관련) 조명제(한의87·국보법), 박정우(신방88·집시법), 신석진(경제88·집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최재호(무역88·집시), 윤병우(사학88·화염병사용 처벌을 위한 특별법(?)), 김일영(한의89·특수공무집행방해), 김주철(특수공무집행방해), 서병식(사학89·화염병사용 처벌에 관한 특별법) 고영재(정외89·화염병), 최동섭(지리90·집시법, 폭력에 관한 특별법)

내가하는 공부

단어의 추상성과 의미변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언어학의 한 분야인 의미론을 비교적 고전적인 방법인 어휘의 이론의 측면에서 다루어 보고 싶다. 구체적으로는, 한 단어의 추상성(구상성)의 정도가 그 단어의 의미발전(변화)에 있어서 또는 다른 단어로의 파생관계에 있어서, 더 나가서는 세계 제언어의 차용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는가를 규명해 보고 싶다. 둘째는 전공분야와는 거리가 있지만 시베리아의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되어있는 알타이어계통의 제언어와 우리 한국어를 비교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 러시아에서 나오는 시베리아지역 알타이어계통의 언어들에 과한 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고 있으나 아직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의미론은 언어학의 가장오래된 학문분야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날에는 통사론이나 화용론의 측면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철학의 한 분야인 분석철학도 의미론의 일종이다. 의미론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 연구결과가 객관적인 타당성을 인정받기가 힘든 분야인데, 이를 좀더 구체화·실증화하고 싶다. 위에서 언급된 러시아 형용사의 연구에 있어서도 노어형용사의 전이현상을 "단어의 추상성의 정도"와 연관지어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시베리아의 알타이어계통의 제언어와 국어와의 비교분석은, 기본어휘의 어휘대응관계와 형태론에서의 유사성 등을 조명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아직 확고히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말의 기원과 분류에 대해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위에서 말한 "하고 싶은 공부"와는 상당히 다르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노어노문학 내지는 러시아 관계의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논문이나 책을 쓰고있다.

위에서 말한대로 나의 경우는 "하고있는 공부","해야할 공부"그리고 "하고싶은 공부"가 서로 달라 차분히 공부해 나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면이있다. 그러나 공부를 평생의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히 이루어 나가고 싶다.

표 상 용

〈외대교수·러어과〉

◇…한의대 파업 50여일

"투지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자"

민족의학 사수의 선봉에 서신 동료 선후배 학우여러분 이제 우리가 파업을 결의한지도 어언 50여일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지금당장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학 때 당할 고통들도 분명히 실존할 확정된 미래입니다. 허지만 이것만은 잊지마십시오 내가 처음 이 소식을 접하고 느꼈던 분노를 그동안 고생한 친구들과 지금 배를 쥐고 단식하는 친구들의 고통만은 또한 저버릴 수 없는 현실임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단식하는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끼를 굶는 순간 학교에서 일하는 잔꾼들은 더욱 열심히 할 것이며 집에서 쉬고있을 친구들의 결의를 추풍해낼 힘을 그 친구들에게 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가슴을 펴고 현실을 바라봅시다. 대한의 아들이라면 민족의학 말살이라는 이 거대한 모순된 역사적 조류, 그것도 서구우월주의라는 뿌리깊은 패배주의에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힘을 냅시다. 나의 참여가 도대체 얼마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란 어설픈 회의주의는 집어치웁시다. 우리의 미력이나마 아낌없이 바치는 것이야말로 진정 민족의학 사수의 일꾼으로서 나를 키워 나가는 것임을 인식합시다. 여러분 열심히 투쟁합시다.

박준혁 〈한의예·2〉

朔風

해직교사복직은 정부 개혁의지의 시험대

교육부 관료가 거액을 받고 사립대학 이사장에게 대학입시 정답지를 수차례에 걸쳐 팔아 먹었다. 이 정답을 외운 학생은 의과대학에 수석합격을 했고 교육관료는 그 돈으로 여관을 샀다.

어쩌보면 세상스러울 것도 없는 일이다. 정통성이 없던 역대 정권은 학교를 정권유지의 기반으로 삼아왔다. 일부 교육관료와 사학측이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충실히 전파하는 댓가로 온갖 비리를 공공연히 저질러도 묵인되어 왔음은 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부패한 교육관료, 무능한 사학재단, 그리고 교육재벌 출신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한데 얽혀 칠흑성을 쌓은게 온갖 비리와 부정을 양산해온 것이다.

김영삼정부는 교육계 비리가 생각보다 심각함을 느끼고 해직교사 출신 장관을 앞세워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 4월16일 대국민사과 담화문을 발표함과 동시에 본부 국장, 과장급에 대해 대대적인 문책성 물갈이를 단행했다.

그러나 교육개혁에 대해 왕강하게 반발하는사람들도 많이 있다. 지난 4월 29일 대한사립 중·고교장회등 13개 교장단은 해직교사 복직을 반대하는 건의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하며 해직교수 복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것을 주장했다. 최근에는 잇달아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가? 물론 있다. 진정한 교육대개혁의 출발은 교육주체들의 활동 보장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즉 교사의 자주적 단체, 학부모 모임, 학생회 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40대 중견교사들이 앞장서서 학교현장의 녹선과 비리를 시정하고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촌지를 없애고 학생들은 자주적인 학생회를 통해 창의성을 키우며 미래의 재목으로 커나가야 한다.

이러한 가운데 유난히 부각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지난 88년 봄 참교육을 외치다 강제로 교단을 떠난 1천5백여 해직교사들이다.

이들의 복직문제는 교육개혁의 출발점임과 동시에 김영삼정부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8일 오병문장관과 정해숙 전교조외원장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이후 실무접촉을 통해 최대 난제인 '복직'과 '전교조 합법화'를 분리해서 검토하기로 합의를 했다. 해직교사들의 복직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다양한 교원단체나 학부모 학생들을 교육개혁의 협력자로 끌어안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입장을 가질 때 복직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시혜'차원에서 복직문제를 다룸려고할 경우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이 봄이 가기 전에 참교육을 위해 일신상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해직교사들이 그리운 교단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내일〉

알림대

교수동정

최용묵교수 방미

【서울캠퍼스】▲허충림(의대·의학)교수=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학회참석차 오스트리아 방문 ▲장린(의대·의학)교수=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 방문 ▲장성구(의대·의학)교수=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 방문 ▲정규림(치대·치의학)교수=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학술발표회 참가차 미국 방문 ▲조경삼(의대·의학)교수=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 방문 ▲최용묵(의대·의학)교수=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 방문 ▲허주엽(의대·의학)교수=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 방문 ▲강홍모(의대·의학)교수=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 방문 ▲윤충(의대·의학)교수=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학회참석차 미국 방문 ▲유영주(가정대·가관)교수=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학회참석차 중국 방문.

【수원캠퍼스】▲전억한(산대·식품가공학)교수=지난 3일부터 8일까지 협력연구차 호주 방문 ▲김상국(공대·산업공학)교수=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아시아체조연맹총회 참가차 중국 방문.

분 실

습득자 본사편집실

【서울캠퍼스】◇지갑=▲한승희(생물·1) ▲주관홍 ▲김광국(의예·88) ▲전빈아(물리·91)

【수원캠퍼스】◇학생증=▲안남진(요업공예·91)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김정미(국문·4) ▲김소연(영문·2) ▲안정수(영문·3) ▲김태연(사학·3) ▲정진영(철학·3) ▲김남주(생물·1) ▲추경주(물리·1) ▲송진철(행정·3) ▲최중락(정외·3) ▲김종백(경제·4) ▲박용석(회계·4)

동문모임

대기고 동문회

【수원캠퍼스】▲제주 대기고 동문회=오는 14일 오후 5시 광대식당 ▲순천여고 동문회=오는 11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강릉고 동문회=오는 11일 오후 5시30분 통일광장 ▲금성고·테레사여고 동문회=오는 14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숭실·숭의 동문회=오는 14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경희 남·여고 동문회=오는 12일 오후 6시 외대앞 ▲광주 향우회=오는 11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대전 향우회=오는 12일 오후 5시30분 공대식당 ▲청주 향우회=오는 11일 오후 5시 공대식당 ▲충남 향우회=오는 11일 오후 5시30분 사회대 앞 ▲포천고 M·T=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대성리.

세계경영 우리기술—대우

지난날 세계로 치달았던 한민족의 기백을
오늘, 대우가 「세계경영」으로 이어갑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저 넓은 세상으로 거침없이 나가면 세계와 미래의 새로운 주인 될 수 있다는 큰 가르침이 있는 민족별판… 지금은 남의 땅이 되어버린 그곳에는 일천오백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우뚝 서서 한민족이 이 땅의 주인이었음을 일깨워 주는 우리 선조의 커다란 목소리가 있습니다.
먼 옛날 굽힘을 모르는 힘찬 기상으로, 광활한 대륙을 향해 내달았던 고구려인들의 굳센 발걸음들—
그것은 바로 창업 이래 지난 4반세기동안 미지의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의 발길과 어느 기업보다 앞선 해외시장

한민족 「세계경영」의 시대를 연다

개척으로 우리경제의 세계화를 주도해온 대우의 정신적 좌표입니다. 이제 대우는, 세계로 치달았던 선조들의 기백을 이어, 한국의 자존(自尊)을 지구촌 곳곳에 심었던 해외시장 개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기술로 해외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경영의 脫국경화전략 「세계경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경제의 중흥을 선도해가고 있습니다.

'해외시장개척'을 넘어 '해외현지경영'으로—
대우가 우리경제의 활로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지역블록화의 급속한 진전,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추세 등으로 해외사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오늘날—

대우가족